

노년층 여성의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행동*

조필교·추태귀*·구양숙**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 *상주산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 **경북대학교 의생활학과

Clothing Behavior of Elderly Women by Lifestyle Groups

Pyl-Gyo Jo · Tae-Gue Choo* · Yang-Suk Ku**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Design, Sangju National Polytechnic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94. 9. 2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lothing behavior of elderly women and compare the clothing behavior by different types of lifestyle among females aged 50~69.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clothing behavior, lifestyl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45 females aged 50~69 during February and May of 1994.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M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lifestyle factors were derived: they were Economics oriented, Leisure oriented, Traditional family oriented, Consumption oriented, Self-confidence oriented, and Independence oriented. The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such as Conservatives, Independents, Pleasure seekers, Positivists, and Material seekers.
2. Symbolism, interest, aesthetics and manage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fferent lifestyle groups.
3. Comfort, modesty, and approva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and family lifestage. Dependence, management, comfort, modesty, and approva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rital status. Aesthetics, comfort, dependence, interest, modesty, and symbolis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al level and the money they can spend on clothes in one month.

* 93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지원으로 된 논문입니다.

I. 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은 점차 연장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는 점차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의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 의류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노년층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노년층의 의복행동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¹⁻⁵⁾.

의류학 분야의 노년층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노화에 따른 체형변화의 파악 및 그에 적절한 의복원형 연구 등 구성학적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6,7)}, 노년층의 의생활실태에 관한 연구들도 일부 찾아 볼 수 있으나^{8,9)}, 노년층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는 여러 의복행동 변인 중 일부분에 관하여 조사한 임치경¹⁰⁾, 이해숙¹¹⁾, 정희용¹²⁾, 김영애⁸⁾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김순구¹³⁾의 연구에서 60대 남녀를 하나의 연령 집단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노년층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의류제품 소비자로서의 노년층의 욕구 및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생활 영위자로서도 소비자로서도 노년층은 별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복행동은 개인 가치관, 성격, 욕구 등을 반영하며, 의복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요인들과 관련지어 이루어져 왔으며, 생활양식개념이 소비자분석을 위한 모델로 도입된 후 의류학 분야에서도 생활양식과 의복행동을 관련지운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년층 여성들을 생활양식에 따라 군집분석을 한 후 각 집단별 의복행동을 비교분석하고, 부가적으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층의 의복행동

일반적으로 노년층은 의복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의복의 안락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Bader¹⁴⁾는 노년층 여성의 의복홍미도가 75세까지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노년층 여성들

은 의복에 관심을 가지고, 매력적인 의복을 원하며, 중년에 가지고 있던 의복태도 및 행동을 고수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Hoffman¹⁵⁾도 전문직 남편의 은퇴가 아내의 의복홍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3/4이 남편의 은퇴로 의복홍미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해 노년층의 의복홍미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음을 밝혔다.

연령에 따른 의복태도 중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남성 의복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복에 관한 한 중년 층은 보수적이며, 노년층은 무관심한 것으로 고정관념화 되어 왔다. 그러나, 60~70대 남성도 의복의 신체적 안락감 뿐 아니라 전체적 외모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의복에 대한 자유를 줬었을 때보다 더 즐기고 있으며, 중년과 노년의 남성을 비교해볼 때 노년일수록 의복에 더 홍미를 나타내며 노년층은 유행감각이 있으면서 너무 유행에 민감한 의복은 피하기 위하여 더욱 의복선택에 신중을 기한다고 했다¹⁶⁾. 또한 은퇴 후에도 적절한 외모를 유지하려고 하고, 안락하고 유행에 따라가며 친구들과 비슷한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Chowdhary¹⁸⁾는 1930~1940년대 스타일을 노년층에서는 유행스타일로 보았으나 젊은층에서는 그것을 클래식 스타일로 분류하여 유행스타일에 대하여 노년 층과 젊은층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또한 노년 층은 유행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소비자라는 기준관념과는 달리 노년층 남녀 모두가 유행스타일을 선호하며, 광고 등에도 노인 모델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mitley¹⁹⁾는 50세 이상의 여성들의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선호도 연구에서 노년층의 생활양식이 다양하며, 생활양식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유형이 다르다고 하여 노년층 소비자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님을 밝혔다.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 전반에 대한 연구에서 유경숙²⁰⁾은 서울의 노년층 여성들이 생활만족도와 의복관심도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생활에 만족할수록 의복관심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임치경¹⁰⁾은 노년층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의복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사회적 불안성이 낮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사회적 인정성과 심리적 의존성을 중요시하고 의복만족도는 낮다고 했다. 특히 계층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인정성을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정희용¹²⁾은 노년기 여성은 의복의 안락감에 가장 관심이 높고, 그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순으로 높으며, 유행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혔다. 또한, 자아에 긍정적인 자각을 하는 노년층 여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과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으며, 교육수준과 계층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안락감은 인구변인과는 무관하게 모두 높다고 했다.

이혜숙¹¹⁾은 노인이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의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의복의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과시성 등을 강조하고 정숙성을 중시하지 않아 의복에 대하여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김순구¹³⁾는 노인기에는 신체적 아름다움이 감소하므로 외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보다는 결점 보완의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흥미가 높고 미적인 면에서도 관심이 있으며 의복의 구매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유행에도 관심을 가져 남에게 동조하기 보다는 주관적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의복생활에 더욱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의복에 대한 동조성은 성인집단보다 크게 높다고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을 볼 때 노년층은 유행을 받아들이는데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젊은 시절의 유행스타일을 고수하려고 하며, 신중하게 유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양식에 따라 선호스타일도 차이가 있으며,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의복에 대한 흥미성도 증가하고, 교육수준이나 계층이 심미성 등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생활 양식에 따른 의복행동

의복은 착용자의 환경 및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Sproles²¹⁾은 의복이 단순한 물질적 객체가 아니라 생활양식의 표현물로써 소비자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Cassil²²⁾은 사회적 모임에서 착용하는 의복을 대상

으로 생활양식 요인과 의복평가기준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자신감이 있거나, 외모와 유행에 관심이 크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람은 적합성이나 타자지향성을 중요시하며, 경제적 평가기준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또한 여행을 즐기고, 소비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경제적 평가기준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거나 가격, 상품 정보에 예민한 사람은 경제적 평가기준을 중요시하며, 적합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인²³⁾은 선호디자인 갑자에 따른 생활양식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양식 변인 중 가정적 견실성 즉 가정에 충실하며 계획을 세워 활동하는 견실한 성향은 의복변인 중 안락성과 정숙성에서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현대적 물질추구성 즉 현대생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질적 충족을 중요시하는 성향은 동조성 및 비계획적 심미성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임경복²⁴⁾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유행추구집단, 가정지향성집단, 외부지향성집단, 보수적-알뜰집단, 소극침체형 집단으로 분류하여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의복구매행동은 구매계획, 탐색점포수, 의류품질표시확인과 겸포내의 조명 기구였다.

김미영²⁵⁾은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양식에 따라 조사대상을 5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의복평가기준을 밝혔다. 즉 성취추구형은 신분상징성과 유행성이 높고 실용성과 경제성은 낮았으며 여가활동형은 신분상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고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은 중간 정도였다. 물질추구형은 성취추구형 다음으로 신분상징성과 유행성이 높고 실용성과 경제성은 중간정도이며,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은 신분상징성과 유행성이 가장 낮고 실용성과 경제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므로 생활양식에 따라 일반적인 생활태도 및 행동 뿐 아니라 의복행동에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현대적이며 자신감이 있고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여가활동에도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의복이나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성이나 품위를 추구하며, 보수적이며 가족지향적인 소극적인 소비자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도 낮고 주로 경제성이나 실용성을 중요시한

다. 노년층의 의복행동도 인구변인 특히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보다는 생활양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양식에 관한 초기 연구로는 1965년 Williams와 Wirth²⁶⁾의 시도를 들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26~29)}을 살펴본 결과 노년층의 생활양식 분류 관점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나, 가족 및 외부사회에 대한 태도, 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경제적, 신체적 능력 및 독립성, 자신에 대한 신뢰감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였으며, 노후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하며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년층의 생활만족도 측정에 관한 연구들은 찾아 볼 수 있으나 생활양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년층 여성들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며, 부가적인 관심으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생활양식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22,25,30~32)}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노년층 여성에게 적절한 문항을 추출한 것과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을 합하여 61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한 후, 1993년 11월에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자료를 주성분 분석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의복행동에 관한 문항은 Creekmore³³⁾의 8개 의복행동요인 중 심미성, 동조성, 안락성, 심리적 의존성, 흥미성, 관리성, 정숙성의 7개 변인과 국내의 선행연구^{13,34~36)}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실정을 고려하여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의 2개 변인을 취하여 총 78문항으로 된 예비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993년 12월 10~20일 사이에 50대 이상의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이 중복된 문항과, Cronbach α 값이 0.5미만으로 나타난 유행성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8개 변인을 본 조사용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항 수는 생활양식에 관한

38문항, 의복행동에 관한 39문항으로 5점평점척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지출가능한 의복비, 가족구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노년층의 연령구분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 생활관습상 만 60세에 회갑을 맞고, 일반적으로 55~65세에 정년퇴임을 하며, 노인 스스로가 노인으로 느끼는 연령을 60세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³⁷⁾. 또한 국민 연금법상 정상 연금 수혜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0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하는것이 타당할 것 같다. 노년층을 파악하려면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노인전기(pre-elderly)와 비교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Smathers 등³⁸⁾의 견해를 참고로 하여 60대 이상의 노년층 여성들과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2월~5월에 걸쳐 의류학전공 대학원생 9명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0대 여성의 경우 개별방문을 통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였으며, 60대 여성들은 주로 노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자가 문항을 읽어주고 응답을 받아지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회수된 519부 중 응답내용이 잘못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44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 군집분석, ANOVA 및 Scheffé test를 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결과 및 논의

1. 생활양식에 따른 응답자의 유형화

생활양식에 따라 응답자를 유형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생활양식변인을 요인분석하여 생활양식요인을 추출한 후, 이 요인에 따라 응답자들을 군집분석하였다.

1) 생활양식 요인

주성분 분석법(PCA)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하였으며, Scree-test 결과 eigen값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 점에서 6개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직교회전시켰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0.35이하로 나타난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총 36문항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요인 분석하여 <표 2>와 같이 6개의 요인이 추출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n=445

인구통계적 변인	변인의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50~59세	253	56.9
	60세 이상	192	43.1
결혼상태	배우자 생존	343	77.1
	배우자사별 또는 별거	102	22.9
학력	무학	19	4.3
	국민학교 중퇴 및 졸업	94	21.1
	중학교 중퇴 및 졸업	114	25.6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139	31.2
	전문대 이상	79	17.8
한달에	5만원 미만	138	31.0
	5~10만원	131	29.4
지출가능한 의복비	10~15만원	88	19.8
	15~20만원	44	9.9
	20만원 이상	44	9.9
가족 구성	미혼자녀와 동거	258	58.0
	기혼자녀와 동거	84	18.9
	자녀와 따로 산다.	103	23.1

되었다.

6개 요인의 누적변량은 48.8%로 본 논문에서 생활양식의 모든 차원을 포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추출된 일반적 생활양식에 관한 6개 요인 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산출한 결과, 6개 요인 모두 0.70이상으로 만족할 만하였다.

2) 생활양식에 따른 군집분석 및 집단의 명칭

생활양식에 따라 응답자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한 후, 각 집단의 생활양식 특성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였다. 또한 각 집단 별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나온 집단수와 연구자의 예측집단수를 고려하여 4, 5, 6개 집단으로 군집 분석한 결과, 5개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빈도는 61, 65, 46, 185, 82명이었다.

빈도 분포로 결정된 5개 집단이 생활양식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표 2> 생활양식의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별 문항 및 명칭

요인 I : 경제적 절약성

문항	요인부하량
나는 가사일을 직접 한으로써 가계비를 절약한다.	.71671
내 물건(특히 의복 등 개인용품은)은 내가 사야 한다.	.66952
나는 쇼핑하기 전에 구입할 물품의 목록을 꼼꼼하게 적는다.	.65339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누가 권하거나 값이 싸도 구입하지 않는다.	.62994
나는 작은 물건이라도 가격을 비교한 후에 구입한다.	.60434
나는 되도록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입 한다.	.58546
살림을 잘 하는 것은 아주 가치있는 일이다.	.58370
나는 죽을 때까지 재산을 관리할 것이다.	.53383
고유치(eigen value)	4.46128
전체변량(%)	12.4

누적변량(%)	12.4	
Cronbach α	.7844	
요인 II : 여가 활용성		
문	항	요인부하량
나는 건강을 위해 산책 등 운동을 한다.	.76031	
나는 취미활동(서예, 지점토, 낚가꾸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72496	
나는 수영, 등산, 산책 등 스포츠를 즐긴다.	.71723	
나는 문화활동(영화구경, 박물관, 음악회,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69849	
내게는 T.V.가 주된 오락원이다.(R).	.68015	
나는 제모임, 동창회 등에 열심히 나간다.	.52880	
고유치(eigen value)	3.84160	
전체변량(%)	10.7	
누적변량(%)	23.1	
Cronbach α	.8063	
요인 III : 가족지향성		
문	항	요인부하량
여자는 남편이나 자녀를 통해서도 성취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75633	
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녀들을 우선으로 한다.	.71108	
남편도 주부를 도와 가사를 돌보아야 한다(R).	.68146	
여성도 자신의 능력을 살리는 일을 가져야 한다.	.67458	
집안의 중요한 일은 가장이 결정해야 한다.	.63631	
나는 필요하다면 손자, 손녀를 돌보아 준다.	.61873	
고유치(eigen value)	3.09024	
전체변량(%)	8.6	
누적변량(%)	31.6	
Cronbach α	.7760	
요인 IV : 과시적 소비성		
문	항	요인부하량
나는 되도록이면 유명상표 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77157	
나는 친구와 이웃(다른 사람)보다 새	.74160	

로운 상품을 먼저 구입하는 편이다.		
나는 친구들보다 옷을 잘 입는 편이다.	.73398	
때로는 값비싼 옷을 사입한다.	.68680	
물건 사는 일은 즐겁다.	.42847	
고유치(eigen value)	2.33772	
전체변량(%)	6.5	
누적변량(%)	38.1	
Cronbach α	.7436	
요인 V : 자신감 지향성		
문	항	요인부하량
나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79255	
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75236	
나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R).	.74746	
나는 자주 협조함을 느낀다(R).	.60786	
친구들이 없으면 매우 외롭게 느낀다 (R).	.57132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가장 즐겁다(R).	.41532	
고유치(eigen value)	2.04192	
전체변량(%)	5.7	
누적변량(%)	43.8	
Cronbach α	.7476	
요인 VI : 보수적 독립성		
문	항	요인부하량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린다.	.70740	
광고는 우리 사회에 낭비를 조장한다.	.66894	
요즈음은 T.V.에 폭력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66776	
나는 외출하는 것보다 조용히 저녁시간을 보낸다.	.58792	
생활이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편이다.	.58013	
고유치(eigen value)	1.80177	
전체변량(%)	5.0	
누적변량(%)	48.8	
Cronbach α	.7041	

ANOVA 및 Scheffé test를 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6개 생활양식 요인 모두에서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5개 집단은 생활양식에

<표 3> 5개 집단의 생활양식 요인별 분산분석 및 Scheffé test 결과

집단		I	II	III	IV	V	F 값
생활 양식 요인							
경제적	M	3.7520	3.3788	3.1005	4.0345	3.8720	46.6468***
절약성	S	B	C	C	A	A	
여 가	M	2.5765	2.2154	3.3514	3.3189	2.2724	86.8497***
활용성	S	B	C	A	A	C	
가 족	M	3.7650	3.3949	3.3826	2.9919	3.0488	18.0781***
지향성	S	A	B	B/C	C	C	
과시적	M	2.5443	2.3938	3.2478	2.8292	3.2610	27.6077***
소비성	S	C	C	A	B	A	
자신감	M	2.8197	3.6487	3.3152	3.1009	3.4004	17.0534***
지향성	S	B	A	A/B	B	A	
보수적	M	3.6230	3.5415	3.3130	3.7622	3.7634	6.7246***
독립성	S	A/B	A/B	B	A	A	

M : 평균

S : Scheffé test, 결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 순서와 같다.*** : $p < 0.001$ 에서 유의함.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된 것임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사대상을 5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집단 I'은 가족지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으며, 경제적 절약성과 여가활용성, 보수적 독립성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 지향성도 낮게 나타난 이 집단은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전반이 소극적 성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소극보수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II'는 여가 활용성, 과시적 소비성이 가장 낮으며, 경제적 절약성도 낮다. 가족지향성도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자신감 지향성은 가장 높으며 보수적 독립성도 높은 편이다. 즉, 이 집단은 경제적으로 절약하면서도 취미, 문화활동을 추구하며 현실 비판적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침체 독립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III'은 여가활용성이 가장 높고 과시적 소비성도 높으며, 경제적 절약성은 가장 낮다. 또한 가족지향성은 낮은 편에 속하며, 자신감 지향성과 보수적 독립성은 중간 정도이다. 즉 전통적인 가족관이나 현실에 대한 보수적 성향이 약하며, 취미나 문화생활을 즐기며, 경제적 절약보다는 과시적 소비를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 집단은 '쾌락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IV'는 경제적 절약성이 가장 높으며 여가 활용성과 보수적 독립성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과시적 소비성은 중간 정도이며, 가족지향성은 가장 낮고 자신감 지향성은 낮은 편이다. 즉, 이 집단은 경제적으로 절약하면서도 취미, 문화활동을 추구하며 현실 비판적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실리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V'는 가족지향성과 여가활용성은 낮으며, 다른 요인에서는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경제적 절약성이 높으면서 과시적 소비성이 높아 절약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유명상표나 값비싼 제품을 선호하는

<표 4> 생활양식 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성

%(n)

인구 통계적 변인		유형	소국 보수형 (61)	집체 독립형 (65)	쾌락 추구형 (46)	실리 추구형 (185)	불질 추구형 (82)	전체 (439)
연령	50대		80.3 (49)	60.0 (39)	69.9 (32)	44.9 (83)	57.3 (47)	56.9 (250)
	60대		19.7 (12)	40.0 (26)	30.4 (14)	55.1 (102)	42.7 (35)	43.1 (189)
결혼상태	배우자 생존		90.2 (55)	78.5 (51)	84.8 (39)	73.5 (136)	73.2 (60)	77.7 (341)
	사별 벌거		9.8 (6)	21.5 (14)	15.2 (7)	26.5 (49)	26.8 (22)	22.3 (98)
학력	무학		3.3 (2)	4.6 (3)	4.3 (2)	3.2 (6)	4.9 (4)	3.9 (17)
	국민학교		23.0 (14)	33.8 (22)	15.2 (7)	17.3 (32)	23.2 (19)	21.4 (94)
	중학교		31.1 (19)	24.6 (16)	19.6 (9)	27.6 (51)	19.5 (16)	25.3 (111)
	고등학교		23.0 (14)	29.2 (19)	37.0 (17)	34.1 (63)	30.5 (25)	31.4 (138)
	전문대 이상		19.7 (12)	7.7 (5)	23.9 (11)	17.8 (33)	22.0 (18)	18.0 (79)
한 달에 지출가능 의 복비	5만원		32.8 (20)	38.5 (25)	26.1 (12)	30.8 (57)	24.4 (20)	30.5 (134)
	5~10 만원		29.5 (18)	30.8 (20)	23.9 (11)	31.9 (59)	26.8 (22)	29.6 (130)
	10~15 만원		27.9 (17)	16.9 (11)	17.4 (8)	16.2 (30)	25.6 (8)	19.8 (44)
	15~20 만원		8.2 (5)	4.6 (3)	13.0 (6)	11.9 (22)	9.8 (8)	10.0 (44)
	20만원 이상		1.6 (1)	9.2 (6)	19.6 (9)	9.2 (17)	13.4 (11)	10.0 (44)
	기혼자녀 동거		73.8 (45)	60.0 (39)	67.4 (31)	50.8 (94)	56.1 (46)	58.1 (255)
가족구성	기혼자녀 동거		18.0 (11)	16.9 (11)	13.0 (6)	20.5 (38)	19.5 (16)	18.7 (82)
	기혼자녀 동거		8.2 (5)	23.1 (15)	19.6 (9)	28.6 (53)	24.4 (20)	23.2 (102)

경향을 나타내어 경제적, 물질적인 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신감 지향성과 보수적 독립성도 높아 이 집단은 '물질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각 집단 별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2. 생활양식 및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

1)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행동

각 생활양식 집단별 의복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표 5>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행동

의복행동	생활양식 집단	소극	침체	쾌락	실리	물질	분산분석 (F 값)
		보수형	독립형	추구형	추구형	추구형	
상정성	M	3.4426	3.4313	3.5156	3.6149	3.6691	2.9220*
	S	2.5820	2.4192	3.0870	2.7514	2.9907	
흥미성	M	2.9770	2.7169	3.1696	3.0876	3.0390	5.6972**
	S	A/B	B	A	A/B2②	A	
심미성	M	3.1607	2.9815	3.3822	3.3632	3.3171	6.5405**
	S	A/B	B	A	A	A	
관리성	M	3.9213	3.7169	3.6826	3.9503	3.8049	5.5955**
	S	A	A/B4⑥	A/B4⑥	A	A	
안락성	M	3.6951	3.7625	3.5522	3.6843	3.5463	2.4337*
정숙성	M	3.6590	3.7569	3.3913	3.7065	3.6875	2.6814*
동조성	M	2.9967	3.0344	3.1130	3.1114	3.1300	.5789

* : p<0.05에서 유의한

** : p<0.001에서 유의함

② : 실리추구형은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없고 침체독립형과는 차이가 나타남

⑥ : 침체독립형과 쾌락추구형은 다른 집단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실리추구형과는 차이가 나타남

<표 6>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

n=443

연령	50 대 (n=252)		60 대 (n=191)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의존성	3.5524	.554	3.5758	.550	-0.44
상정성	2.7115	.717	2.8115	.644	-1.52
흥미성	3.0364	.637	2.9813	.568	0.95
심미성	3.0364	.604	3.2792	.561	-0.39
관리성	3.8206	.497	3.9063	.430	-1.90
안락성	3.5953	.519	3.7466	.473	-3.16**
정숙성	3.5341	.653	3.8474	.574	-5.25***
동조성	2.9618	.533	3.2483	.595	-5.32***

** : p<0.01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여, 의복행동 변인 별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보면 모든 집단에서 관리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정숙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안락성,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반

면, 흥미성과 동조성은 낮게 나타났다. ANOVA 결과, 8개 의복행동 요인 중 동조성을 제외한 7개 요인에서 생활양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표 7> 결혼상태에 따른 의복행동

n=444

결혼상태	배우자 생존 (n=343)		사별, 별거 (n=101)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의존성	3.5345	.546	3.6580	.564	-1.98*
상정성	2.7515	.689	2.7649	.684	-0.17
흥미성	3.0251	.606	2.9706	.616	0.79
심미성	3.2717	.567	3.2495	.647	0.33
관리성	3.8280	.468	3.9580	.468	-2.44**
안락성	3.6246	.501	3.7804	.502	-2.76**
정숙성	3.6246	.637	3.8178	.625	-2.69**
동조성	3.0265	.565	3.2824	.579	-3.99****

* :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8> 교육수준에 따른 의복행동

n=444

의복행동	교육수준	무학 (n=19)	국민학교 (n=94)	중학교 (n=14)	고등학교 (n=138)	전문대 이상 (n=79)	분산분석 (F 값)
		M	S	A	A	A	
심리적 의존성	M	3.5474	3.4723	3.5168	3.5518	3.7570	3.3644**
	S	B	A	A	A	A	
상정성	M	2.4342	2.6835	2.6798	2.7808	2.9778	3.8496**
	S	B	A	A	A	A	
흥미성	M	2.4842	2.8064	2.9807	3.0691	3.3316	13.4637***
	S	C	B/C4	B	B	A	
심미성	M	2.8632	3.1043	3.1770	3.3223	3.5873	12.0670***
	S	B/C4	B	B	B	A	
관리성	M	3.9667	3.8681	3.8368	3.8290	3.8987	.5847
안락성	M	3.9579	3.7830	3.7027	3.5755	3.5316	5.7367***
	S	A	A	A/B	B	B	
정숙성	M	4.1158	3.8383	3.7363	3.5768	3.4205	8.4922***
	S	A	A	A/B5	B	B	
동조성	M	3.2105	3.1398	3.1789	3.0116	2.9846	2.3611

M : 평균, S : Scheffé test 결과

** : p<0.01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 p<0.001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 test에서는 심리적 의존성, 안락성과 정숙성을 제외한 4개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집단별 의복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소극보수형은 관리성만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다른 요인에서는 낫거나 중간 정도로 나타나 의복의 경제적 구입이나 관리에 중점을 두나, 의복행동 전반에 대한 관심이 낮아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침체독립형은 안락성과 정숙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행동 요인에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복은 편안하고 정숙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생활양식에서 침체되고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것처럼 의생활에도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쾌락추구형은 상정성, 흥미성 및 심미성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고, 관리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관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상정성과 흥미성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쾌락추구형이라도 관리성이 다른 집단

에 비해서는 낫지만 문항의 응답 중 '그저 그렇다'에 해당하는 3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실리추구형은 생활양식 특성과 같이 관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고 심미성도 추구하나, 상정성은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가의 유명상표를 추구하지 않고, 적은 돈으로 좋은 옷을 구입하는데 관심이 많으며 심미성도 중시하는 집단이다.

물질추구형을 8개 의복행동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실리추구형과는 달리 신분상징성에도 다소 관심을 보이는 집단이다. 또한 심리적 의존성과 동조성도 높아 5개 집단 중 옷차림을 가장 의식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ANOVA 및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락성, 정숙성, 동조성에서 유의차를 보여, 50대 보

<표 9> 한달에 지출 가능한 의복비에 따른 의복행동

n=443

의복행동		지출가능 의복비	5 만원 미만 (n=137)	5~10 만원 (n=131)	10~15 만원 (n=87)	15~20 만원 (n=44)	20 만원 이상 (n=44)	분산분석 (F 값)
심리적 의존성	M	3.5318	3.4605	3.5682	3.7864	3.7182	4.0001**	
	S	A	B	A	A	A		
상정성	M	2.6131	2.6355	2.7898	2.9830	3.2500	10.1988***	
	S	B4	B	B	A/B	A		
흥미성	M	2.4842	2.8064	2.9807	3.0691	3.3316	7.5078***	
	S	A/B5	B	A	A	A		
심미성	M	3.1855	3.1585	3.3318	3.4409	3.5364	5.5776***	
	S	A/B5	A/B5	A	A	A		
관리성	M	3.8926	3.8336	3.8386	3.9773	3.7364	1.7620	
안락성	M	3.7826	3.6923	3.5523	3.5682	3.4909	4.9391***	
	S	A	A	A	A/B1	A/B1		
정숙성	M	3.7562	3.7550	3.5182	3.6818	3.4318	4.0788**	
동조성	M	3.0934	3.0985	3.0409	3.0279	3.1682	.4837	

M : 평균, S : Scheffé test 결과

** : p<0.01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 p<0.001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 60대 여성들이 3개 변인 모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60대 여성들의 의복에 대한 관심이 50대 여성에 비해 낮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자신감의 감소로 남녀 관계없이 노인기에 의복에 대한 동조현상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 김순구¹³⁾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동조성도 중시한다는 강혜원³⁹⁾, 이명희⁴⁰⁾등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결혼상태에 따른 의복행동 <표 7>은 상징성, 흥미성, 심미성을 제외한 5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배우자 생존 시보다 사별 또는 별거 시 5개요인 모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층의 생활에서 배우자 사별 또는 별거는 심리적 상실감과 고독감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의복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의존성, 상징성, 흥미성, 심미성은 높아졌으나, 안락성과 정숙성은 낮았다<표 8>. 이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미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선행연구들^{41,42)}과 일치하고 있다.

한달에 지출가능한 의복비<표 9>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의존성, 상징성, 흥미성, 심미성이 높아졌으며, 안락성은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상징성과 의복흥미성도 지출가능한 의복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심미성 또는 높아지고 있으나, 안락성과 정숙성은 지출가능한 의복비가 적을수록 중시하였다.

가족구성에 따른 의복행동<표 10>은 안락성, 정숙성, 동조성의 3개 요인에서 유의차를 보여 3개변인 모두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응답자들이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응답자들보다 연령이 더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50~60대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는 몇 개 요인을 제외하고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령은 의복행동을 설명해 주는 적당한 변수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수준이나 지출 가능한 의복비가 의복행동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표 10> 가족구성에 따른 의복행동

n=444

의복행동 가족구성				분산분석 (F 값)	
	미혼 자녀 동 거 (n=257)	기혼 자녀 동 거 (n=84)	자녀와 별 거 (n=103)		
심리적 의존성	M	3.5961	3.4857	3.5412	1.367
상징성	M	2.7471	2.7143	2.8064	.447
흥미성	M	3.0674	2.8976	2.9689	2.840
심미성	M	3.2918	3.2119	3.2485	.653
관리성	M	3.8209	3.9738	3.8535	3.382
안락성	M	3.6039	3.7405	3.7359	3.870*
정숙성	M	3.5556	3.9012	3.7647	11.159***
	S	B	A		
동조성	M	3.0094	3.2190	3.1650	5.543**
	S	B	A/B		

M : 평균, S : Scheffé test 결과

* :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V. 결 론

노년층의 의복행동을 밝히기 위하여 50대 및 60대의 노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변인 및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행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양식요인은 경제적 절약성, 여가 활용성, 가족지향성, 과시적 소비성, 자신감 지향성 및 보수적 독립성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생활양식 요인에 의한 군집분석을 한 결과 조사대상은 소극보수형, 침체독립형, 쾌락추구형, 실리추구형 및 물질추구형의 5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생활양식 집단에 따른 의복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동조성을 제외한 7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 7개 요인에 대하여 Scheffé test를 한 결과 상징성, 흥미성, 심미성 및 관리성의 4개 요인에서 집단간 유의차를 보였다. 또한 동일한 생활양식 집단 내에서는 실리 추구형 만 의복행동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은 연령과 가족구성에 대해서는 안락성, 정숙성 및 동조성의 3개 요인, 결혼상태에 대해서는 심리적 의존성, 관리성, 안락성, 정숙성 및 동조성의 5개 요인, 교육수준과 한 달에 지출 가능한 의복비에 대해서는 관리성과 동조성을 제외한 6개 요인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연령은 노년층의 의복행동을 설명해 주는 적당한 변수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년층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연령보다는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노년층이 의복에 무관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노년층의 생활양식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복행동도 구매행동, 의복선흐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년층시장의 가능성은 이미 여러 산업체에서 주시하고 있으며, 의류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층은 의복의 상징성을 중시하지 않고 정숙성, 안락성, 관리성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관리성 특히 경제적 관리성을 만족시켜 주며, 심미성도 어느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년층

을 위한 증가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며, 안락성을 고려 할 때 이지 오더(Easy Order) 형식의 전문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Lumpkin, J.R. & Greenberg, B.A., Apparel-shopping Pattern of the Elderly Consumer, *Journal of Retailing*, 58(4), 68-89, (1982)
- 2) Kaiser, S.B. & Chandler, J.L., Fashion Alienation: Older Adults and the Mass media, *Int'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3), 203-221, (1984)
- 3) Hogge, V.E., Baer, M. & Kang-Park, J., Clothing for Elderly and Non-elderly Men: a Comparison of Preferences, Perceived Availability and Fitting Problems, *C.T.R.J.*, 6(4) 47-53, (1988)
- 4) Darden, L.A. & Roper, L.L., Influence of Channels of Communication on Men's Clothing Purchase: a Cross-Gennnerational study, *Educational Gerontology*, 13, 121-138, (1987)
- 5) Chowdhary, U., Clothing and self-esteem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female: two experiments, *Educational Gerontology*, 17, 527-541, (1991)
- 6) 김혜경, 장승옥, 노년층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분석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4), 53-67, (1982)
- 7) 함우상, 한국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8) 김영애,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1)
- 9) 조필교, 추태귀, 구양숙, 노년층여성들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3(2), 135-147, (1994)
- 10) 임치경,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서울시내 노인 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1) 이해숙,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대전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12) 정희용,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13) 김순구, 성인 및 노인집단의 인구통계적, 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14) Bader, I.M., *An Exploratory Study of the Clothing Problems and Attitudes of a Group of Older Women in*

- Iowa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woa (1963)
- 15) Hoffman, A.H., *The Daily Needs and Interests of Older People*,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296, (1976)
- 16) Horn, M.H. & Gurel, L.M.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 17) Simpson, M.M. & Littrell, M.A., Attitudes toward Clothing of Elderly Me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 171-180, (1984)
- 18) Chowdhary, U., Self-esteem, Age Identification, and Media Exposure of the Elderly and their Relationship to Fashionability, *C.T.R.J.*, 7(1), 23-30, (1988)
- 19) Smitely, R.G., *Clothing Preferences of Women over Fifty years of Age in Relation to Their Lifesty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89)
- 20) 유경숙,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서울, 광주 거주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4)
- 21) Sproles, G.B. (1979), *Fashion-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 31, (1979)
- 22) Cassil, N.L., Apparel selection criteria related to female consumers' lifestyle, *C.T.R.J.*, 6(1), 20-28, (1987)
- 23) 김영인, 선호디자인 감각에 따른 의복구매자 유형과 관련된 생활양식 특성에 관한 연구(II)-의복구매자 유형과 스타일 선호 및 구매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3(4), 94-107, (1989)
- 24) 임경복,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여대생의 시간소비 유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25) 김미영, 생활양식유형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26) Williams, R.H. & Wirth, C., *Lives through the years*, New York: Atherton Press, Quoted in Atchley, R.C. (1988), *Social Forces and Aging-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 Co., 127, (1965)
- 27) Bartos, R., Over 49: the Invisible Consumer market, *Havard Business Review*, Jan.-Feb., 140-148, (1980)
- 28) French, W.A. & Fox, R., Segmenting the Senior Citizen Market, *Th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1), 61-72, (1985)
- 29) Sorce, P., Tyler, P.R. & Loomis, L.M., Lifestyles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6 (3), 53-63, (1989).
- 30) Wells, W.D., *Lifestyle & psychographics*, Chicago: American Marketing System, 180-183, (1974)
- 31) Mitchell, A., *The Nine American Lifestyl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244-248, (1983)
- 32) Schutz, H.G., Baird, P.C., & Hawkes, G.R., *Lifestyles and Consumer Behavior of Older Americans*, New York: Praeger, 3, (1979)
- 33) Creekmore, A.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 92-97, (1966)
- 34) 이금실, 사회체측면인에 따른 여성의 의복태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35) 원선주, 학령기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국민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36, (1989)
- 36) 유덕화, 여가 종고등학생들의 복식행동과 복장규범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37) 전재일, 노년으로서의 자기개념의 시기와 요인에 관한연구, 노인복지연구, 1. (1978)
- 38) Smathers, D.G. & Horridge, P.E., The Effects of Physical Changes on Clothing Preferences of Elderly Women, *Int'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9(3), 273-278, (1978-79)
- 39)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 학적 의복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1-11 (1979)
- 40) 이명희,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1982)
- 41) 이인자, 주부의 의상형태에 대한 10대 자녀들의 반응에 관한연구, 전국대 생활문화 연구소 연구보고, 1, 35-50, (1977)
- 42) 김정호, 김민자,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제 2보: 서울과 대전 여대생의 패션리더쉽의 비교-, 대한 가정학회지, 21(2), 1-6, (1983)